



KEPCO45의 방신봉(왼쪽)이 15일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스파이크한 볼이 이선규의 얼굴을 강타하고 있다.

수원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편집 | 김재학 기자 asapo@donga.com 트위터@daigao

## ‘레프트’ 주상용, 하감독에 첫승 선물

〈현대캐피탈 하종화〉

KEPCO45전 필멸...포지션 변신 OK  
현대캐피탈 3-2 승리 준결리그 진출  
여자부 현대건설은 흥국 잡고 2연승

수원 | IBK 기업은행  
프로배구대회 2011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변신한 주상용(21점·사진)

의 활약을 앞세운 현대캐피탈이 KEPCO 45를 누르고 준결리그에 진출했다.

현대캐피탈은 1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계속된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KEPCO 45를 세트스코어 3-2(25-15 22-25 25-20 21-25 15-11)로 꺾었다.

KEPCO45의 끈질긴 추격으로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지만 주상용은 이날 승부



의 분수령이던 5세트 11-9 상황에서 강스파이크와 센스 넘치는 킥오픈 공격으로 연속 3득점을 올리며 승부를 갈랐다. 5세트에서는 4득점을 올렸지만 공격 성공률 100%로 집중력이 단연 돋보였다. 현대캐피탈 하종화와 감독은 프로 데뷔 첫 승을 올렸다.

현대캐피탈 하종화 감독은 “컵대회에서 라이트인 주상용을 레프트로 돌린 것은 정규리그에서도 레프트로 삼아서 V리그에서도 라이트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캐피탈과의 첫 경기서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아직까지 레프트 포지션에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해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용병이 라이트를 거의 전담하는 한국남자 프로배구의 특성상 주상용 역시 라이트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레프트로 전향하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

주상용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주상용은 “컵 대회를 통해 레프트로 뛰고 있는데 이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V리그에서도 라이트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캐피탈과의 첫 경기서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아직까지 레프트 포지션에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는 현대캐피탈 센터진의 활약도 큰 보탬이 됐다. 이선규는 블로킹 4개

를 포함해 19점을 올렸고, 윤봉우는 블로킹 1개를 포함해 12점을 올리며 센터진이 노쇠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평가를 무색케 만들었다. 이선규는 “노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수로 남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캐피탈(2승)과 현대캐피탈(1승1패) KEPCO45(2패)가 속한 A조에서는 우리캐피탈과 현대캐피탈이 각각 조 1, 2위로 준결리그에 진출했다.

한편 여자부 A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경기에서는 레프트 박슬기(13점)의 활약을 앞세운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1로 꺾었다. A조에서는 현대건설(2승)과 인삼공사(1승1패)가 각각 조 1, 2위로 준결리그에 진출했다.

수원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KEPCO45 신춘삼 감독은 박준범을 한국을 대표하는 레프트 공격수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김창현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in

## “반쪽 킬러 박준범, 수비도 즐겨라”

신춘삼 감독, 리시브 불안 해법 제시  
“부담 털어야 국가대표 에이스로 진화”

“박준범을 국가대표 에이스로 키우겠다.” KEPCO45의 신춘삼 감독이 박준범을 레프트 포지션에서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밝혔다.

KEPCO45는 15일 수원·IBK기업은행컵 프로배구대회에서 현대캐피탈에 패하며 2패로 컵대회를 마감했지만 5세트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박빙의 승부를 펼친 V리그

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박준범은 비록 팀 패배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양 팀 통틀어 최대 득점인 23점(공격성공률 50%)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신 감독은 “박준범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현재 진화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 준비가 잘 되는 것이 한국 배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박준범을 에이스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박준범은 공격력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지만, 레프트로서의 필수 조건인 수비 리시브 불안이라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다. 신 감독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박준범이 진정한 에이스의 역할을 하려면 레프트의 필수 덕목인 공수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뛰어난 레프트의 조건인 공격 성공률 55%, 수비 리시브 66~65%를 이뤄내야 한다. 공격만 하고 수비는 하지 않는 것은 반쪽 선수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이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준범이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스트레스를 즐기는 단계로 가야 한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에이스의 덕목이다.”

수원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 한국 여자배구, 그랑프리 예선 3연승

파죽지세의 한국 여자배구다.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11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선수권 예선에서 3연승을 내달렸다. 한국은 15일(한국시간) 폴란드 지엘로나구라에서 열린 대회 2주차 B조 예선 3차전에서 17득점을 따낸 김연경(더키 페네르바체)의 활약을 앞세워 아르헨티나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앞서 쿠바와 폴란드를 차례로 제압한 한국은 예선 7위에 올라 결선 진출을 향한 청신호를 켜다. 지난 주 부산에서 열린 예선 첫 주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1승2패를 기록해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으나 폴란드에서 호성적을 내며 전망을 밝혔다. 김 감독은 “하겠다는 정신력이 좋은 결과를 냈다”고 기뻐했다. 대표팀은 일본으로 이동해 19일 러시아전을 시작으로 예선 3주차 라운드에 돌입한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대니얼 강, US 여자아마골프 2연패

한국계 대니얼 강(18·사진)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11회 US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대니얼 강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로드 아일랜드 골프장(파71·6399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대회 결승전에서 모리아 주타누가(태국)에게 5홀을 남기고 6홀을 앞서는 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대니얼 강은 2회 연속 이상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11번째 선수가 됐다. 페퍼다인대학에 재학 중인 대니얼 강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프로로 전향한다.



미국의 키건 브래들리가 15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PGA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에 입맞춤하고 있다. 브래들리의 깜짝 우승으로 미국이 떠들썩하다. 애플랜드(미 조지아주) | AP연합뉴스

## PGA챔피언십, 루키 폼에 안기다

25세 브래들리, 연장골 메이저 첫 우승  
나상욱 2언더 공동 10위...최경주 39위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대회인 PGA챔피언십에서 ‘루키’ 키건 브래들리(25·미국)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브래들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리크의 애플랜드 어슬레틱 골프장(파70·7467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 제이슨 더프너(미국)와 최종합계 8언더파 272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5월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올 시즌 미 PGA 투어에 데뷔한 브래들리는 16~18번 홀을 플레이한 뒤 합산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는 연장전에서 1언더파를 쳐 이븐파에 그친 더프너를 1타 차로 제압하고 우승상금 144만달러(약 15억5000만원)를 챙겼다.

브래들리의 우승으로 미국은 2010년 4월 마스터스 대회에서 필 미켈슨(미국)이 우승한 이후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해소했다. 미국에서는 브래들리를 로리 메릴로이와 비교하며 스타 만들기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브래들리는 연장 첫 번째 홀인 16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여 버디를 잡은 뒤 17번홀과 18번홀을 파로 막았다. 반면 16번홀에서 파를 기록한 더프너는 17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고도 3퍼트를 하는 바람에 보기를 적어내 2타 차로 뒤졌고, 18번홀(파4)에서 6m짜리 버디 퍼트에 성공했지만 브래들리가 차분하게 파를 잡아내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최종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한국 및 한국계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인 공동 10위(2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끝마쳤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공동 39위(4오버파 284타),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은 공동 45위(5오버파 285타),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공동 59위(8오버파 288타), 2009년 이 대회 우승자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공동 69위(12오버파 292)로 하위권에 그쳤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 “땅 사서 집 지으면 그린피 단돈 3만원”

한맥CC&노블리아, 전원주택 연계 마케팅 눈길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그린피를 3만원으로 깎아주는 골프장이 있다.

수도권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15~20만원, 지방은 10~15만원이다. 은퇴한 골퍼가 일주일에 2~3번씩 즐기기에 부담 가는 금액이다. 그런가 하면 경북 예천에 위치한 한맥CC&노블리아는 골프장 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집을 짓는 사람에게 그린피를 3만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국내에서 그린피를 3만원만 내고 라운드 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면 회원권 가격이 적어도 5억원을 넘는다. 그것도 회원 본인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이 골프장은 부부 모두에게 3만원씩 받는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데 3억원이면 충분하다.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 가격도 안 된다. 게다가 보유 자금이 맞춰 단독 또는 공동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된 1가구 2주택 미적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원생활을 고려 중인 은퇴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페블릭(대중제)으로 조성된 골프코스 또한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최대 전장이 7317야드이고, 페어웨이와 그린은 양잔디를 식재해 사시사철 푸른 잔디에서 라운드 할 수 있다. 골프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말고도 장점이 또 있다. 한맥CC&노블리아 박성일 본부장은 “부부가 함께 생활해도 월 15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 비용으로 골프를 하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